

## 金東里의 反近代主義 文學論

구 모 룽\*

A Literary Discussion on Dong-Ree Kim's Antimodernism

Mo-Ryong Koo\*

### 〈 目 次 〉

- |                |             |
|----------------|-------------|
| 1. 서론          | 나. 순수문학론    |
| 2. 본론          | 다. 전통과 반근대성 |
| 가. 주체정립과 생명문학론 | 3. 결론       |

### 1. 서론

본고는 김동리의 문학론의 형성 배경과 인식구조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그가 제시한 이론적 담론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론적 담론들의 분석은 그가 어떠한 조건 속에서 어떠한 내용의 담론을 통하여 그 효과를 얻고자 하였는가를 알 수 있게 한다<sup>1)</sup>. 이로써 그의 생명문학론, 순수문학론 그리고 반근대성 체계 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2. 본론

#### 가. 주체정립과 생명문학론

김동리의 문학의 시작은 식민지 현실의 질곡과 근대주의적 사상의 동요라는 1930년대의 현실 속에서 전통주의를 통하여 시대적, 사상적 혼란을 벗어나고자 한 데서 비롯된다<sup>2)</sup>. 그는 식민지후기의 세계를 혼

\*한국해양대학교 교양과정부 강사(국문학 전공)

1) D. Macdonell, *Theories of Discourse* (Basil Blackwell, 1986) 참조

2) 그의 문학적 출발은 전통지향적인 것과 근대적인 것이 혼재한다. 이것은 전통지향성을 추구한 [화랑의 후예] (1935년, {조선중앙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와 근대지향성의 [산화] (193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작)가 공존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그러나 1936년 5월에 [무녀도]와 [바위]를 발표함으로써 그의 문학적 지향은 뚜렷해졌다고 볼 수 있다. 1936년을 기점으로 하여 그의 문학세계는 전통지향적 보수주의를 확고한 세계관으로 견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동하, {현대소설의 정신사적 연구} (일지사, 1989), pp. 42-65. 참조.

## 구 모 통

돈으로 인식하고, 그로부터 주체를 정립하고자 이론적 바탕을 마련한다. 이것은 현실세계의 혼란된 모습과 대조되는 "진정한 미"의 세계를 지향하는 것으로 표출된다. 진정한 미는 그에게 주체적인 것, 즉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내재하는 고유의 미이다. 이러한 그의 지향은 자연스럽게 전통을 통하여 문학적 주체를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나타난다.

우선 「文字偶像」에서 그는 1930년대 후기 문학의 상황을 리얼리즘, 휴머니즘, 지성, 모랄 등의 '문자우상'이 지배하고 있는 병든 현실로 친단하고 문자우상으로서 문단의 권위와 권력을 지키고자 하는 기성문학 인에 대하여 우상파괴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당시의 문학상황을 사상(세계)없는 혼돈의 상태로 인식하고 이의 극복을 위하여 산 사상의 획득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게 된다.

그리하여 문단제폐를 노리는 객기의 문자우상을 버리고, 참으로 그 도에 정진하여 좀더 혈액있는 사상, 산지혜를 포착해주기 비는 바이다<sup>3)</sup>.

그는 이렇게 기존의 문학논리에 대하여 그 사상의 허실을 들어 비판하고, 자신의 문학적 입장을 객관화 한다. 그에게 있어 산 사상, 산 지혜는 곧 도(道)에 정진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진술에서 전통지향적 사유방식을 엿볼 수 있다. 그의 문학론은 시작부터 삶에 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고, 이 삶을 통괄하는 도에의 관심으로 나타나 있다. 이 도는 보편생명으로서의 우주, 또는 자연에 해당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원래 자연이란 정착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경우란 무한한 것이오, 그 경우가 무한함에 따라서 진리의 수효도 또한 무한한 것이니. 그러므로 진리란 하나뿐이란 이 하나는 몇 억천만으로 분해할 수 있는 초자연적 소수 일(一)이다<sup>4)</sup>.

유기화된 전체로서의 자연의 원리는 일리(一理)의 원리이다. 그 속의 개체들은 인접적인 관계 속에서 제 유적인 의미를 가진다. 각각의 개체들은 저마다의 개성을 통하여 도를 표현한다. 이 도는 하나가 전체이며, 모든 것은 하나 속에 있다는 유기화된 전체성이다. 김동리의 문학론은 이러한 전통적 사유의 원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sup>5)</sup>.

그는 1930년대 후기 문학론에 있어서 생명의 문제의식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문학논의에 대응하고 자기정립의 가능성을 개진한다<sup>6)</sup>. 그는 이러한 가능성은 외래적 사상의 수용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재적 전통의 외화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김동리의 문학론은 주체의 자기정립의식의 하나이다. 이것은 외적

3) [문자우상], 《朝光》, 1939년 4월, p. 307.

4) 《純粹異意》, 《文章》, 1939년 8월, p. 148.

5) 전통적 유기론의 원리가 김동리의 문학이론의 기초가 되고 있는 데, 전통적 유기론에 관한 것은 拙著, 《한국문학과 열린 체계의 비평담론》(열음사, 1992), pp. 17-28. 참조.

6) 1930년대 후기문학과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김준오, 《후반기문학과 삶에 대한 집념》, 《한국문학연구집》(조동일외편, 지식산업사, 1982), 참조.

인 것에 대응하는 내적인 것의 자기보존 방식의 한 양상이다. 그에게 있어 작가의 생명의식이나 생명적 진실만이 최선의 길이 된다. 따라서 순수한 생명현상만이 "문학정신의 정도"<sup>7)</sup>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유기론적 생명문학론이 나름의 창작방법으로 표출된 것이 주관주의적 리얼리즘론이다.

어떠한 주관이나 객관이 그 자체가 따로 떠려져서는 아무런 리얼리즘도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작자의 주관과 아무런 교섭도 없는 현실(객관)이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작가적 리얼리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이다. 한 작가의 생명(개성)적 진실에서 파악된 세계(현실)에 비로소 그 작가적 리얼리즘은 시작하는 것이다<sup>8)</sup>.

그의 리얼리즘론은 문학주체의 주관성의 획득에 문학적 가치의 중심을 두고 있는 관점이다. 이것은 살아 있는 인간의 생명적, 개성적 진실만이 가장 확실한 진실성을 보장해 준다는 견해라 할 수 있다. 주관주의적 리얼리즘으로 불릴 수 있는 김동리의 새로운 창작방법론은 당시의 문학적 주류로서의 유물론적 리얼리즘과 대립된다. 그는 현실세계의 객관적 진실을 지향하는 리얼리즘에 맞서 자기의 생명자체로서 파악한 주관적 진실의 리얼리즘을 내세운다<sup>9)</sup>.

김동리의 문학론은 일체의 외적 강제를 배제하는 생명의 자율적 움직임에 가장 중요한 촛점을 두고 있다. 고정된 카테고리나 주의는 생동하는 인생이 못되기 때문에 주의를 표방하기보다 인생을 포착하고 생명의 부단한 변화의 연속에서 인간성의 리얼리티를 표현하는 것이 문학의 진실이라는 삶의 문학론을 제출한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허다한 작가들이 각자의 인간성 탐구의 한 방편으로서 무슨 주의를 표방하고는 그 주의를 통하여 과연 진정한 인간성을 탐구하기전에 그작가 자신의 인간성까지를 도로 그 주의의 제단에 번체물로 뱃처버린 사실을 너무도 많이 또 역역히 보아왔기 때문이다. 어떤 고정된 카테고리를 통하여 탐구하는 인간성이란 것의 유령은 될지언정 생동하는 인생은 아니다. 주의를 표방하기보다 먼저 인생을 포착할것이다<sup>10)</sup>.

이처럼 김동리는 문학의 주체를 인간주체로 인식한다. 그리고 인생의 구체적인 진실을 들어 여타의 모든 외적인 사상의 강제를 배격한다. 따라서 그는 1930년대 후기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나 모더니즘을 삶의 내적 요청에 의한 사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배격한다. 그러면서 "이러한 의미에 있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

7) 김동리, 앞의 글, p.146.

8) [나의 소설수업], 《문장》, 1940년 3월, p.174.

9) 물론 이러한 그의 문학론의 형성에 서구사상가의 영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A. 베르그송과 W. 재임스는 그의 유기론과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삶의 문제의식으로 표명된 그의 문학 유기론은 서구의 생철학과 무관하게 이미 그의 무의식에 내적 언어로서 자리잡고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 상황에 맞서 주체정립의식의 한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의 생철학은 그가 전통지향적 문학이론을 외화하는 과정에서의 한 계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0) 김동리, 앞의 글, p.67.

## 구 모 통

한 한 개의 주의가 있다면 그것은 작가를 모든 주의의 제단에서 생명의(문학적 의미의) 혼실로 나아가게 할 진정한 의미의 인생주의 그것 이외에 없을 것”<sup>11)</sup> 이라고 단언한다.

김동리의 문학론은 자기보존의 형태로 나타난 대타존재성의 이론이다. 이것은 근대적인 것에 대응하는 반근대주의의 모습을 떤다. 이미 앞에서 주체 정립의식의 하나로서 삶에 관한 문제의식이 보여주고 있듯이 문학현상을 생명현상의 일부로 보는 그의 문학론은 특히 유물론적 이론과 대립된다.

이 땅 신문학의 근본이념이 구주근대문학적 정신에서 출발한 것이고, 구주근대문학정신의 대동맥이 곧 인간의 개성과 생명의 고양내지 그것의 구경추구에 있다는 사실과, 이 땅의 경향문학이, ‘물질’이란 이념적 우상의 전제하에 인간의 개성과 생명을 예속 내지 봉쇄시켰드라는 사실과를 아울러 생각할 때, 이 경향문학퇴조 이후의 이 땅의 문단 신생면이 그러한 이념적 우상에의 예속으로부터 인간의 개성과 생명의 해방을 고조하며 나아가서는 그것의 구경적 의의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도 그리 이해하기 곤란한 일은 아닌 줄 생각한다<sup>12)</sup>.

이러한 진술에서 김동리가 신문학의 근본이념을 구주근대문학적 정신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말한 것은 신문학의 근본이념이 인간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세계문학의 보편성의 제시와 김동리의 문학론이 지난 전통지향성의 관련성은 이론의 미숙이나 논리의 결함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면서 동시에 그의 관심이 인간주의에 있음을 뜻한다. 그는 자신의 인간주의 문학관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서구근대문학의 일반논리를 담론 속에 끌어들인 것이다<sup>13)</sup>. 그는 이러한 인간주의와 물질주의를 대립적 관계에서 파악하고 경향문학이 이념적 우상에의 예속을 가져왔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1930년대 후기의 경향문학퇴조 이후 신문학의 근본이념으로 인간의 개성과 생명에 대한 탐구가 새로운 문학세대의 이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새로운 문학 세대의 이념이 신문학의 근본이념과 연속성을 유지함을 강조함으로써 그 정통성을 확인하려는 담론전략을 견지하고 있다<sup>14)</sup>.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인간이라

11)같은 글, p.69.

12)[신세대의 정신], [문장], 1940년 5월, p.84.

13)김동리의 문학론에 있어서 인간주의humanism의 문제는 항상 서구의 보편논리로 자신의 이론 속에 편입된다. 해방전의 ‘르네상스 휴머니즘’과 해방이후의 ‘제3휴머니즘’ 등이 그 예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담론전략은 한편으로 그의 문학론의 논리를 보편성의 자리에 놓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전통지향성에 대한 불철저성(물론 이러한 불철저성은 전통을 중심으로 근대를 감싸안으려는 신전통주의자 일반의 태도라 할 수 있다)의 불안한 표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4) 이러한 김동리의 문학론은 그 변별성의 법칙에 의해 비평사에 있어서 세대논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의 문학유기론은 식민지 후기 상황에서의 자기정체성 확립의 한 의식형태이면서, 이것이 지난 미학적 기준의 차별성에 의해 앞세대의 문학론과 대립된다. 세대논쟁은 그의 문학론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요컨대, 그는 인생주의를 새로운 세대의 문학논리로 내세우게 된다. 그는, 인생의 개성과 생명의 구경추구를 신세대의 문학정신으로 표방함으로써 주체정립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변별성

는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에 의하면, 유물론은 물질주의 정신이며 이것은 물질을 이념적인 우상으로 삼기 때문에 개성과 생명의 성장을 왜곡한다는 것이다. 그에게 문학은 개성과 생명의 표현이며, 인생은 "제 개성과 생활과 운명과 의욕의 유기적 하모니 속에 부단히 호흡하며 성장하는 것"<sup>15)</sup> 이므로 하나의 주의나 사상은 인생의 한 부분으로 유기화되어야 할 대상이지 외적으로 강제되어야 할 것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유기체의 생명현상으로 동화와 성장의 원리를 외적 사상을 문제삼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 시대나 현실에 대한 작가의 진정한 의지나 신념이란 이미 인생자체에 대한 그것이 아니면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인생자체에 대한 적극적 의지던 신념이던 하는 것은 각작가의 생명과 개성의 구경에서 성취되는 것이지 외래의 이념이나 조류의 그것이 아니다<sup>16)</sup>.

이처럼 김동리는 삶의 자발성을 최상의 자리에 두고서 모든 외적 사상이나 이념을 배제한다. 여기서 외적 사상은 근대주의적 이념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주된 비판의 대상은 그가 "물질주의정신"이라고 하는 유물론적 경향이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근대주의에 반립하는 관심과 인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의 인간주의의 주장은 문학 내의 사정에 의해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충분한 자각적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의 인간주의에의 지향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전통적 인간주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관심은 안/밖, 인간/물질, 전통/근대, 유기론/유물론의 의식형태로 구조화되고 있다.

이러한 인간에의 관심은 문학의 자율성 응호로 나타난다. 생명과 개성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은 문학의 자율성을 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미적 자율성론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율성론은 해방 이후 순수 문학론의 형태로 표출된다.

#### 나. 순수문학론

식민지 후기에 형성된 김동리의 문학론은 생의'문제를 모든 가치의 정점에 두는 사유형태로서 전통적인 사유방법이 전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해방이후 이러한 그의 문학론은 민족문학 논의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전개된다. 그의 민족문학 논의는 「조선문학의 지표」에서 볼 수 있듯이 명백하게 계급적인 시각에 대한 대응의 차원에서 전개된다.

그런데 그의 논의는 민족 / 계급의 문제를 현실적 모순에 대한 구체적 해결의 문제로보다 어느 것이 더

---

의 법칙은 새로운 문학세대가 기존의 지배적인 미학기준을 타파하려고 하면서 자신들의 미학적 변별성을 주장하고 나서는 생산양식을 의미한다. 오생근, [문학제도의 시각과 위상], {현대비평과 이론} 1991년 봄호, p.49. 참조.

15)김동리, 앞의 글, p.84.

16)같은 글, p.87.

## 구 모 통

주류이고 정통이나의 문제로서 접근한다<sup>17)</sup>. 물론 그는 민족혁명 단계론의 세 가지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i) 세계사적 현실에서 민족적 개성의 확립이 가장 시급하며, ii) 역사적으로 민족 대 민족의 의식이 전 민족에 공명되어 있고, iii) 약소민족으로서 민족혁명의 과제가 우선 한다는 것이다<sup>18)</sup>. 이러한 논거에서 우리는 김동리의 관심이 민족내부의 구체적 문제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민족은 하나의 유기체라는 입장에서 있다. 민족 내부의 분열의 문제는 비주류적이고 비정통적인 분파행위로 간주된다. 이러한 담론에서 보듯이 그의 민족문학론은 정통성의 획득이라는 시각이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구체적 실천의 문제가 배제된 추상적 명분론에 가깝다. 그의 민족문학론은 그 단초에서부터 권력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민족혁명의 이념이란 이념적으로 타민족에 대한 대등적 자주적 지위를 말하는 것이고, 자체적으로는 민족적 자각이며 민족정신의 양양(혹은 자존)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족혁명의 단계에 있어서의 우리 민족의 문학적 지표란 민족문학의 수립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님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왜 그러냐 하면 민족 문학이란 곧 민족정신 발휘의 문학이며 동시에 문학상의 민족적 자각일 뿐이기 때문이다<sup>19)</sup>.

대외적으로 민족의 자주적 지위를 확보하고 대내적으로 민족적 자각과 민족정신의 양양이 민족혁명의 이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은 문화적 전통의 기반 위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문화전통과 민족정신이 과거에서 현재로 우리 민족의 호흡과 핏줄 속에 흘러내려 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에서 김동리는 민족문학의 과제를 민족정신의 발휘구현에 둔다.

김동리는 개인과 민족의 관계를 유기론적 예정조화의 관계로 인식한다. 따라서 계급의 존재는 이러한 유기론에 대하여 적대적이다. 유기론에 의하면 민족은 하나이다. 그리고 민족정신은 민족문학 속에 담겨 있으며 그것은 개별작가의 생명과 개성의 발현에서 가능한 것이다. 개인은 전통과 공동문화를 호흡하며 민족

17) 다음과 같은 그의 진술이 이를 잘 말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날의 이 혁명적 현실을 민족적 각도에서 보느냐 계급적 각도에서 보느냐 하는 문제다. 여기서 특히 주의할 것은 이 양자 중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옳고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그르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느 것이 더 주류적이며 정통적이나 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조선문학의 지표], 《청년신문》 1946년 4월 2일.

18) 그는 자신의 논리를 보완하기 위해서, [조선문학의 좌표]에서 다음과 같이 레닌의 논지를 끌어들인다.

"레닌은 민족운동과 그 의식을 규정하되 약소민족은 계급혁명보다 먼저 민족혁명에 의한 민족적 단결이 필요하다. 왜 그러나 하면 약소민족이란 민족적 위치를 보아서 이미 일종의 무산계급에 속하는 것이며 자체 내에서 다시 계급적 대립(혹은 투쟁)을 가질 때는 자체의 분열로 말미암아 적(착취계급인 침략국가 혹은 민족)에 대한 항거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착취계급(침략국가)에 대항하기 위하여 계급 투쟁보다도 먼저 민족혁명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레닌의 논지를 왜곡하고 있다. 왜냐하면 레닌의 민족문제에 대한 시각은 변증법적인 것으로 김동리가 말하듯이 선후의 단계론이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레닌은 민족적 민주주의적 투쟁과 사회주의 혁명을 변증법적 관계로 인식하였다. 배동문 편, 《마르크스주의와 민족문제》(한울, 1986), pp. 152-154.

19) 김동리, 앞의 글.

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기론적 민족문학론은 「민족문학문제」에서 작가의 개성-작품-민족정신의 순환논리로 표출되고 있다.

민족을 떠난 개인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민족적 운명과 절연된 개인적 운명이란 또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한 사람의 문학적 작가가 자기자신의 생명적 현실에 대한 정확한 통찰과 양심적 비판과 성의로써 지양에 노력한다는 것은 곧 자기자신의 운명에 대한 정열없이 불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개인적 생명 현실에 대한 지양과 운명에의 정열이야말로 곧 민족적 성격의 지양이 되는 것이요 민족적 운명에의 정열을 의미하는 것 밖에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sup>20)</sup>.

김동리는, 작가의 개성의 표현으로서의 작품은 민족정신의 표현이 되고 작가의 개성은 민족정신과 불가분리의 유기적 관계에 있다는 순환논리를 견지한다. 이러한 순환논리는 물론, 식민지 후기에서의 생명과 개성의 문학론이 둥어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때의 담론에서의 보편생명, 보편인간이라는 추상화 과정이 해방 후에는 민족정신으로 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담론의 구조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하겠으나, 그 중심의 의미가 민족정신이라는 것으로 집약되고 있다. 이러한 민족중심주의가 해방 이후의 문학논의의 담론을 통하여하게 된다.

김동리의 민족문학론은 순수문학론으로 구체화된다. 물론 순수문학론은 이미 식민지 후기에 김동리의 문학론으로 제출되었던 것이다. 그는 순수문학을 민족문학의 "정통과 주류"<sup>21)</sup>의 자리로 등장시킨다. 그는 「창조와 추수-현문단의 이대주류」에서 민족문학의 두 가지 경향을 경향문학과 순수문학으로 나누고 전자를 계급적 각도에서 규정하려는 유물론적 합리주의적 경향으로, 후자를 민족적 각도에서 규정하려는 창조적 휴머니즘적 경향으로 파악한다. 그는 순수문학과 경향문학을 다음과 같은 대립항을 가진 이원대립적 구조 속에서 파악한다.

순수문학	경향문학
민족	계급
이원론의 초극(유기론)	유물론
인간주의	기계주의, 공식주의
데모크라시	불세비즘
창조적	추수적

이 같은 이원대립에서 보듯이 김동리의 순수문학론은 경향문학에 대한 대립의 논리로서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대립구조 속에서의 순수문학론이나 경향문학론은 모두 정치적인 것이며 이데올로기적인 것이다. 이러한 담론의 효과 때문에, '이원론의 초극'이라는 포괄적 명제는 구체적인 전체성을 획득할 수 없게 된다.

20) [민족문학문제], 《수산경제신문》, 1946년 6월 10일.

21) [순수문학의 정의], 《민주일보》 1946년 7월 11일.

## 구 모 통

심과 물, 동과 서의 이원적 대립의 창조적 지향<sup>22)</sup>이라는 과제의 제시에도 불구하고(이것은 나중에 제 3 세계관으로 발전한다) 순수문학론이 경향문학론을 포괄할 수 없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명제를 제시하고 있음은, 지향되지 않은 동일성으로서의 유기론적 전체성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포괄의 문제가 아니라 정통성의 문제로 인식될 수 밖에 없다.

김동리의 순수문학론은 인간주의를 표명함으로써 경향문학에 대립한다. 그는 순수문학을 문학정신의 본령정계의 문학이라 하고 문학정신의 본령이 인간성 응호에 있음을 강조한다<sup>23)</sup>. 그는 휴머니즘을 정신사적으로 3기로 나누고 제 3 기 휴머니즘의 의의를 설명한다<sup>24)</sup>.

- i ) 1기 휴머니즘 : 고대 휴머니즘
- ii ) 2기 휴머니즘 : 르네상스 휴머니즘
- iii) 3기 휴머니즘 : 현대 휴머니즘 - 과학주의 기계론에 대한 대응

그는 이러한 정신사적 문맥의 설정에 의해 과학적 세계관, 진보적 레알리즘, 혁명적 로맨티시즘, 과학적 창작방법 등을 공식론적 유물사관체계로 보고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비판한다. 이러한 세계관과 창작방법 속에는 인간성의 창조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3기 휴머니즘의 정신사적 정당성이 도출되고, 따라서 개성과 인간성을 응호하는 "민족 단위의 휴머니즘"의 순수문학만이 민족정신의 민족문학의 주류라는 것이다. 그의 휴머니즘은 인간의 능력이 어떤 초월적 실재 혹은 영원한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개성주의 혹은 정신주의적인 경향을 띠고 있어 주관적 휴머니즘의 한 예라 할 수 있다<sup>25)</sup>. 그런데 마르크시즘도

22) [창조와 추수], 《민주일보》 1924년 9월 15일

23)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순수문학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문학정신의 본령정계의 문학이다. 문학정신의 본령이란 물론 인간성 응호에 있으며, 인간성 응호가 요청되는 것은 개성 향유를 전제한 인간성의 창조의식이 신장되는 때이니 만치 순수문학의 본질은 언제나 휴머니즘이 기조되는 것이다." [순수문학의 진의], 《문학과 인간》(백민문화사, 1948), p.106.

이러한 진술에서처럼 순수문학이 정통성이라는 담론효과를 위해 '본령정계의 문학'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본격문학'으로 재정의된다. 요컨데 김동리는 순수문학이 문학정신의 본령에 있는 정통의 문학이라는 견해를 견지하면서 그 근거로 휴머니즘을 듣다.

24) 같은 글, pp.106-109.

25) L. 코리스에 의하면 현대 휴머니즘은 다음의 네 가지로 분류된다. i) 아카데미 휴머니즘-르네상스 휴머니즘의 전통을 되살리자는 운동으로 초자연적 복고적 경향을 띠며 고전교육을 통한 도덕성의 확립, 인간과 자연의 구분 등을 주장. ii) 기틀럭 휴머니즘-신학적 윤리학에 토대한 종교적 휴머니즘. iii) 주관적 휴머니즘-개인의 주관실현을 목적으로 삼는 휴머니즘이는데, 여기서 객관적 진리는 등한시되며 오히려 초자연주의적 경향이 강조됨. iv) 자연주의 휴머니즘-자연이 전부요 초자연적 존재란 없다는 인식 아래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파악하고자 하는 휴머니즘.

그리고 맥밀란 철학 사전은 이와 다른 내용으로 역시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i) 자본주의 사회와 사

휴머니즘의 한 유형이라는 점에서 마르크시즘을 반휴머니즘으로 비판한 그의 견해는 논리적인 결함이 있다. 그의 휴머니즘관은 휴머니즘 / 마르크시즘의 관계에 대한 것이므로 주관적 휴머니즘 / 마르크시즘적 휴머니즘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다.

그런데, '순수문학-인간주의-민족문학-민족정신'으로 이어지는 그의 이론적 담론 속에는 구체성이 없다. 순수-인간-민족-정신이라는 추상화 과정만이 존재한다. 이것은 관념론이며, 이러한 관념론은 곧 모든 것을 생의 문제로 환원시켰던 해방전의 문학론의 연장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생의 문제의식이 민족과 인간의 문제의식으로 바뀌어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념론에는 다음과 같은 담론전략이 내재해 있다.

좌우 개념을 좌우간 그 목적이 독립과 해방에만 있다면 우리는 서로 감정적 대립을 버리고 호양관용의 길을 택해야 한다. 좌우간 우선 뭉쳐야 되겠기 때문이다.<sup>26)</sup>

이와 같이 그의 순수문학론은 문제의 근본을 유기적으로 은폐하는 담론전략과 관련성이 있다. 인간의 보편성, 민족의 보편성에 근거하여, 무조건 뭉쳐서 독립과 해방이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모순의 구체적 해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인식에 이르지 못한다. 그는 오히려 현실세계에 대하여 지양되지 않은 동일성을 강조함으로써 현실세계의 보수를 의도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순수문학은 파괴된 현실세계와 대조되는 상상의 세계에 속한다.

#### 다. 전통과 반근대성

김동리의 문학론이 그 나름의 가능성으로 자기 전개를 이루고자 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순수문학과 제 3 세계관」에서 제 3 세계관으로 표명된 것이다. 물론 이것도 인간성의 옹호, 팀구, 조화라는 인간주의적 문학관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는 모든 가치의 최상의 자리에 문학의 자율성과 인간성의 옹호를 전제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자유향상의 욕구로서의 생명력이 물질보다 그 이전에 있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가능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김동리의 물질관과 생명관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유물론과의 대립의 단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

유재산의 결과에서 생긴 인간의 소외를 그들만이 폐지시킬 수 있다고 믿는 마르크시즘. ii) 인간중심의 세계관의 관점에 선 실용주의. iii) 인간의 능력이 어떤 초월적 실재 혹은 영원한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개성주의 혹은 정신주의. iv) 인간의 세계, 인간주관의 세계 이외에 그 어떤 세계도 없다는 실존주의.

이러한 두 유형의 분류에 의거할 때, 김동리의 휴머니즘은 코리스의 iii)과 맥밀란의 iii)의 성격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휴머니즘의 유형에 대해서는, 오세영, [한국 현대문학과 휴머니즘], (휴머니즘연구) (서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편, 서울대출판부, 1988), pp. 3-5. 참조.

26) [좌우간의 좌우], {백민}, 1946년 10월, p. 22.

## 구 모 통

i) 물질적 생활자료의 산출방법이 사회적, 정치적 및 정신적 일반 생활상의 과정을 결정한다.

ii) 인간생활에 있어서 그 자유 향상의 욕구와 방법은 사회적, 정치적 및 물질적 일반 생활의 과정을 결정한다.

i)은 마르크스의 유물론이다. 이에 대응하여 김동리는 ii)와 같이 주장한다<sup>27)</sup>. 그는 i)을 일면적 진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의 근거로서 자유향상의 욕구인 생명력의 형이상적 근원론을 제시한다. 그는 유물론에 대응하여 인간주체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생명의 근원을 물질에서 찾고 있는 부하린의 유물론적 견해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부하린은 그의 (유물사관)에서 물질의 우위성과 독립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정신의 주인공인 인간은 동물에서, 동물은 다시 더 적은 미생물에서, 미생물은 '죽은 자연'(즉 작열상태의 지구)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 말하라고 하면 미생물이 생겨날 수 있던 지구, 그것은 이미 '죽은 자연'이 아니라 '산 자연'이었다는 것이다. 토양과 우로와 광선과 공기의 운동작용에서 어떤 미생물이 생겨날 수 있었던 지구, 그것 자체가 이미 생명력을 가진 한 개 '산 자연'이었던 것이다<sup>28)</sup>.

김동리의 생명관은 유물론과 대립된다. 그는 부하린의 죽은 자연이론에 맞서 산 자연의 이론을 제시한다. 이 산 자연이론이야말로 전통적 유기론의 표현에 다름 아니다. 우주생성론이나 보편생명현상에 대한 전통적 유기론의 시각은 생명현상을 하나의 근원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유물론의 실재론은 이러한 생명관과 정반대이다. 유물론에 의하면 생명현상도 물질의 작용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sup>29)</sup>.

김동리의 독창적인 세계관인 제 3 세계관은, 이러한 생명관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그것은 달리 '상생상극의 변증법'으로 불릴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 '자유향상의 욕구라는 주체적 조건과 물질적 생활자료의 산출방법이라는 객관적 조건이 상호 제약하며 상생상극하여 인간역사의 변증법적 전개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일체의 정신현상은 물질적 조건의 부수적 작용이라고만 단정한 데서 맑시즘의 오류와 경화는 출발하게 되었던 것이며, 이들의 모든 공식주의와 획일주의와 기계주의도 이어서 고정되고 말았던 것이다<sup>30)</sup>.

이러한 상생상극의 변증법은 유물변증법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다<sup>31)</sup>. 이것은 전통적 사유형식의 발

27) [본격문학과 제 3 세계관], (문학과 인간), p.120

28) 같은 글, p.121.

29) F. 앵겔스(윤형식외역), {자연변증법}(중원문화, 1989), pp.307-325. 참조.

30) 김동리, 앞의 책, pp.122-123.

31) 양재혁에 의하면 변증법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진다.

i) 세계의 진화 발달에 다르는 구조로서의 변증법, 객관적 자연 변증법 - 중국의 음양론. ii) 인식방법에

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상생상극'은 우주와 생명의 보편원리이기 때문이다<sup>32)</sup>. 그에게 유물변증법의 자연변증법은 상극의 이론으로 편향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상생상극이라는 생동형성적 형태의 자연변증법<sup>33)</sup>이 요청되게 되는데, 그는 이러한 변증법을 통하여 근대주의를 극복하는 제3세계관의 가능성을 제시한다<sup>34)</sup>.

즉 근대주의의 말로에서 도달된 과학 만능주의와 물질 지상주의와 기계 문명주의 등은 고대에 있어서의 신화적 미신적 제신의 우상처럼, 중세에 있어서의 계율화된 전제신의 암제처럼 또 다시 한개 새로운 근대적 우상이 되어 인간에게서 꿈과 신비와 낭만과 그리고 구경적인 욕구를 박탈하게 되었다. 여기서 인간은 이 과학주의, 물질주의, 기계주의를 비판하고 이를 초극하고자 하는 새로운 의욕에 도달하게 된 것이며, 이것이 곧 제3휴머니즘이란 표어로서 대표되는 제3세계관에의 지향이라 일컬는 것이다<sup>35)</sup>.

김동리의 제3세계관은 근대주의의 초극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는 근대주의를 극복하고자 한 유물론적 기획이 그 "본질에 있어서는 당연히 양기되어야 할 근대주의의 연장과 여식의 융결에 불과하게 되었던 것"이라 지적함으로써 근대주의의 두 양상(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을 모두 초극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제3세계관은 탈근대주의적 일면<sup>36)</sup>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제3휴머니즘은 이와 같이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과 결함을 근본적으로 시정하는 일방, 맑시즘 체계의 획일적 공식적 메카니

---

관한 변증법, 주관적 사유에 관한 관념 변증법 - 플라톤, 헤겔. iii) 주관과 객관이 통일된 차원에서의 진리규정에 관한 관념변증법 - 마르크스, 엥겔스, 모택동. 그리고 양재혁은 i)과 iii) 엥겔스의 자연변증법을 동일지평으로 이해하고 있다. 양재혁, 앞의 책, pp. 196-198. 참조. 그런데, i)과 iii)의 관계에서는 i)이 iii)의 모택동의 변증법으로 전화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i)과 iii)의 엥겔스는 그 출발에서 생명 / 물질이라는 대립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송두율, 앞의 책, p. 201 및 엥겔스, 앞의 책. 참조.

32) 윤사순, [동양본체론의 의의], 배종호편, {동양철학의 본체론과 인성론} (연세대출판부, 1982), pp. 164-167. 참조.

33) 살아 움직이는 어떤 힘에 의해 모습이 주어진다는 것으로 "一陰一陽之謂道"에서와 같은 음양의 교호작용에 의한 과정을 말한다. 송두율, 앞의 책, pp. 8-9. 참조.

34) 그의 제3세계관은 孫文의 마르크스주의 비판과 유사한 일면이 있다. 孫文은 진화의 삼단계를 i) 물질 진화의 시기, ii) 물질진화의 시기, iii) 인류진화의 시기로 나누고 인류가 구하는 것이 생존에 있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공생, 공존 및 공진화(도)는 바로 인류역사 진화의 중심이며 천지간의 모든 물질과 법칙은 다 민생을 위한 것이라야 효용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관점이다. 이를 통해 그는 유물론적 진화론을 비판하고 있다. 陳立夫(정인재역), {중국철학의 인간학적 이해} (민지사, 1986) pp. 20-21. 참조.

35) 김동리, 같은 책, p. 127.

36) 송두율, [현대 속의 동양사상], {현대와 사상} (한길사, 1990) 참조.

## 구 모 통

즘을 지향하는 테서 새로운 고차원의 제 3 세계관을 확립하려는 테에 그 지향이 있다”<sup>37)</sup>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제 3 세계관의 탈근대주의적 가능성이 하나의 의의로 남는다. 그러나, 그는 “현대는 아직 이것의 지향에 그쳐 있을 뿐으로 본격적 천명에 도달해 있지 못한, 한 개 과제로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제 3 세계관의 구체적인 실현의 기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언표된 내용을 뒷받침할 실천적 매개의 가능성이 없어 논의의 구체성은 결여되어 있다. 오히려 이것은 전통주의의 변장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의 제 3 세계관은 언표된 의미의 포괄의지와는 달리 아무런 현실성을 띠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근대주의 / 탈근대주의의 관계가 아니라 근대주의 / 반근대주의의 관계의 제인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김동리의 제 3 세계관은 상이한 시간성으로서 인식되는 역사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 이와 달리 이것은 동일적 연속의 시간성을 내포하고 있다. 제 3 세계관은 미래전망적인 의식형태가 아니라 인간성이라는 추상적 가치에 호소하는 관념론적 의식형태이다. 김동리의 문학유기론은 제 3 세계관의 제시로까지 진전되었으나 근본적으로 이원적 대립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다. 제 3 세계관이 세계관으로서 충분한 의의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원적 대립구조에 대한 해체의 구체적 대안이 되었어야 했을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해체의 대상에 스스로의 인식구조도 포함하는 반성성이 있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김동리의 담론은 모두 이원적 대립의 구조 속에 놓여져 있을 때 때문이다. 이러한 담론의 이원구조는 주체(행위자) / 반주체(적대자)의 관계로 미리 결정된다. 그 관계는 <문학가동맹>과 그가 주도한 <청년문학과협회>의 대립이라는 제도에 의해 뒷받침된다.

김동리는 「문학운동의 이대방향」에서 이러한 담론의 대립구조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는 문학가동맹이 내세우는 주요 강령이 파괴에 목적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하여 청년문학과협회 측의 강령을 그 나름으로 새롭게 해석하여 그것을 제시하면서 이 속에 건설이 목적이 있음을 주장한다. 그는 민족주체의 입장에서 민족정신과 문학정신의 자유로운 신장이라는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좌파측의 투쟁적인 구호에 대결한 것이다.

문학가동맹	김동리
봉건잔재의 청산	민족정신의 확립
일제잔재의 소탕	문학정신의 옹호
국수주의의 배격	자주독립의 실현

김동리는 문학가동맹측에 대하여 이들의 주장이 민족의 파괴와 해체에 목적이 있다고 비판하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개성인 민족정신을 확립할 것을 강조한다. 개성과 인간성의 발휘가 보장되는 문학의 자율성으로서의 문학정신의 옹호가 있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민족과 개인의 자유를 실현할 민주주의의 확립이 있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러한 대립의 관계 속에서 담론은 관계권력을 얻게 되고 이데올로기적인 이

37) 김동리, 앞의 책, p.129.

38) 김동리의 여러 글들에 흩어져 있는 여러 대립적 이념소를 지닌 개념어들을 추출하여 보면 대략 다음과

념소를 갖게 된다<sup>38)</sup>.

### 3. 결론

김동리의 문학론은 식민지 말기의 상황 속에서 주체정립의 형태로 형성된다. 그는 문학적 주체를 전통에서 찾았는데, 이것은 외적인 사상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된다. 그는 진실이 인간적 삶의 순수한 생명 현상 속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사상의 외적 강제를 배격한다. 따라서 그는 근대주의로 대표되는 외적 사상을 배격하면서 생명현상의 문학론인 유기론을 정통의 이론으로 정립한다. 그는 외적 사상을 배격했지만, 특히 유물론의 물질주의에 대해서 일찍부터 반대의 입장에 선다. 그리고 생명현상의 자율성에서와 같이 문학의 자율성을 옹호한다. 이것은 뒤에 민족문학의 이념으로 나타난다. 그의 민족관은 유기적인 관점을 견지한다. 민족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인식하면서 민족문제를 최선의 과제로 생각하고 민족문학은 민족정신의 앙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한다. 그의 민족문학은 계급문학에 대하여 대립적인 입장에 서 있다. 그는 민족문학의 주류와 정통의 자리에 놓인 문학으로 순수문학을 든다. 인간성의 순수한 발현으로서의 순수문학은 민족의 보편적 개성인 민족정신을 구현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보편성에 이르는 문학이다. 그의 순수문학론은 민족성과 인간성에 대한 동어반복과 추상화를 그 내용으로 한다. 김동리의 세계관에 있어서 중요한 전전의 하나는 제 3 세계관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유물론의 물질주의에 반대하면서 유기론의 생명론을 전개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론이 유물론의 세계관과 자본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제 3의 가능성임을 전제하고 있다. 이 속에 근대의 초극이라는 문제의식이 담겨있는 것으로 그의 문학론이 포지한 가능성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가능성을 구체화하지 못한다. 그의 담론은 유물론과의 대립적인 관계 속에서 자의식을 상실하게 된다.

---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명/물질 : 순수/경향 : 인간/반인간 : 민족/계급 : (참/거짓)

이와 같은 대립쌍들은 대체가능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배제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데올로기적이다.

